『영미연구』
제68집 (2026): 19-44
http://doi.org/10.25093/ibas.2026.68.19

D. H. 로렌스의 「섬을 사랑한 사나이」와 자크 데리다의 '로빈슨 이야기' 분석

박 시 영
단독 / 이화여대

[국문초록]

D. H. 로렌스의 「섬을 사랑한 사나이」는 우화의 형식을 빌어 섬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한 사나이의 삶을 그리고 있다. 섬과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에 대한 독자들의 낭만적인 상상력은 소설의 시작부터 성에는 관심이 없고, 기이한 성격의 주인공이 자신의 확고한 경제 원칙에 따라 농장 경영에 몰두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으로 바뀐다. 비록 우화의 형식이지만 그 속에 그려진 산문적인 현실은 '홀로 있음'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된 세부 사실로 전달되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데리다의 『로빈슨 크루소』와 하이데거의 서구 형이상학론에 대한 비교 연구는 '로빈슨 이야기'적인 성격이 강한 이 소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로렌스의 소설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의지로 모든 존재를 관리, 통제하려는 캐스카트라는 인물은 서구 근대의 주권 개인이 구현된 예이고, 그가 맞는 비극은 서구 근대 세계관의 종말을 의미한다. 「섬을 사랑한 사나이」는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서구 문명의 핵심인 개인과 주권에 대한 오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주제어: 홀로 있음, 주권, 형이상학, 로빈슨 이야기, 권위, 세계 만들기, 지배함

1. 들어가면서

D. H. 로렌스(D. H. Lawrence)의 「섬을 사랑한 사나이」("The Man Who Loved Islands")는 영국이라는 '섬'에서 태어났으나 "자신만의 섬"을 원한 캐스카트(Cathcart)라는 한 남성이 세 개의 외딴 섬으로 순차적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섬에서 거대한 눈폭풍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암시로 끝나는 암울한 이야기이다.[1] 한 사나이가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려다가 실패한다는 서사 구도는 이 단편소설이 '로빈슨 이야기'(Robinsonade)의 20세기적 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2] 캐스카트가 "20세기 로빈슨 [크루소]"(Karl 434)로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백인이기는 하지만 "열정이나 결단력이 없는"(434) 인물이고, 로렌스는 이 인물을 통해 20세기를 지배한 황폐 또는 쇠퇴로 표현되는 실존의 공허함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440). 이 주장은 '로빈슨 이야기'라는 맥락을 부각함으로써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캐스카트를 '열정이나 결단력이 없는' 20세기의 로빈슨 크루소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렌스의 소설에서는 오히려 캐스카트가 자신의 섬을 "단 하나의 알, 오직 단 하나만이 알을 담는 둥지"이고, "그 알은 섬사람인 자신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에 따라 자신의 섬을 관리,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MLI* 458).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캐스카트를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강박에 가까운 신념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갈망에 사로잡혀있는 인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Harris 235).

F. R. 리비스(F. R. Leavis)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고립"에 홀리듯이 빠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과 "자신만의 세상에서 자급자족에 대한 그의 병적인 갈망"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324). 리비스는 마지막 섬에서 캐스카트가 다른 인간과의 접촉을 혐오하는 모습과 고립무원의 무인도에서 홀로 폭풍에 맞서 죽게 되는 이 소설의 결말이 "다른 삶들과의 관계 없이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326)를 전달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 비록 리비스가 '로빈슨 이야기'라는 틀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가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주제어로 제시한

'고립', '자급자족', '관계'는 이 소설의 '로빈슨 이야기'로서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리비스의 논지는 로렌스의 소설이 '로빈슨 이야기'의 또 다른 예가 아니라, 21세기에도 문화담론을 지배하면서 '고립'과 '자급자족'의 꿈을 꾸게 만드는 '로빈슨 이야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른 삶들과의 관계 없이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렌스가 '로빈슨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서사구조를 지배하는 '홀로 있음'과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근대 이래 서구문명의 핵심어인 개인의 '주권'(sovereignty)을 연구한 프랑스 철학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이론을 작품 분석의 틀로 원용하고자 한다. 데리다는 개인의 '주권'이 서구의 근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심 문제임을 주장하면서 18세기 영소설가 대니엘 디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The Life and Strange Surpriz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1719, 이하 『로빈슨 크루소』)와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1929-30년 강연을 모아 출판한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 세계, 유한성 그리고 홀로 있음』(*The Fundamental Concepts of Metaphysics: World, Finitude, and Solitude*, 1983, 이하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을 비교 연구했다. 데리다는 『로빈슨 크루소』가 주권을 가진 개인이라는 서구 근대사상의 인간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예로 보고, 20세기 서구 철학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한 하이데거의 이론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서구의 주권을 가진 개인이라는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의 비교 연구는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로빈슨 이야기'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로렌스가 이 소설을 통해 열정과 결단력 있는 로빈슨 크루소의 귀환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문명의 태생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틀이다.

2. 데리다의 '기이한 커플',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

데리다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프랑스 EHESS(*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에서 「짐승과 군주」("*La bete et le souvrain*")라는 제목으로 서양 근대철학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세미나는 데리다의 사후인 2008년 프랑스에서 『짐승과 군주』(*La bete et le souvrain*) 1권과 2권으로 출판되었고, 각각 2001-2002년, 2002-2003년까지의 강의를 담고 있다. 1권에서 수록된 2001-02년 세미나 강연에서 데리다는 주권 군주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서구 근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부정해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힌 '짐승'(beast), 또는 짐승성에 주시한다.[3] 데리다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서구 문명을 관통하는 주권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서구 근대사상에서 드러나는 '짐승'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 수사학적, 정치적인 함의를 인간의 언어와 죽음에 대한 통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반면 본 논문의 주요 해석 틀인 데리다의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 분석을 다루고 있는 2권에 수록된 2002-03년 세미나는 주권이라는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2001-02년 세미나가 철학과 문학을 역사적으로 통찰하는 방식과는 달리 단 두 권의 텍스트,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2-03년 세미나의 특징은 데리다 스스로도 "기이한 커플"(*BS II* 31)이라고 부른 이 조합을 통해 『로빈슨 크루소』의 핵심인 '홀로 있음'의 문제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의 '*Walten*'—'지배하다' 또는 '조종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하이데거가 우주의 원초적인 힘 또는 폭력을 의미하고자 사용한 개념—을 양 축으로 서구 근대사상을 지배한 주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는 점이다(Naas 2).[4] 언뜻 보기에 통상적이지 않은 이 조합은 데리다가 언급하듯이 서구 근대사상, 특히 근대적 개인상과 주권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에게 『로빈슨 크루소』가 주요 지침서였다는 사실과 루소의 사

상에 대한 반성이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논리 전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데리다는 '짐승'과 '주권'이라는 주제로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을 비교하는 작업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루소를 매개로 양자를 쌍안경의 두 렌즈에 비유함으로써 절대적인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BS II* 45).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데리다의 접근이 자신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무리한 포섭이 아니라 비평적 객관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에 대한 비평이론을 간략하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5] 데리다는 정치, 경제, 철학적 이론 틀을 중심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해석해온 비평 결과물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적, 반사회적인 고립주의, 또는 섬나라 근성을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 징후"(*BS II* 26)로 보는 맑스주의자들의 입장이나 이 소설의 "타자가 없는 세상, 따라서 가능성 없는 세상"(*BS II* 26-27)은 정신병리학적인 "도착"(perversion, *BS II* 27) 증세를 드러낸다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해석을 넘어 주권 개인이라는 서구 근대의 세계관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는 주권 개인이라는 서구 근대의 세계관을 논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인 루소가 『사회계약론』(*Social Contract*)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세습 군주가 아닌 창세기의 아담(Adam)이나 노아(Noah)와 같은 "세상의 주권 군주"라고 언급하면서 제시한 주권 군주에 대한 고찰에 주목한다(*BS II* 21). 데리다의 주장에 따르면, 비록 루소가 주권 군주의 예로 아담이나 노아를 지명하지만, 그의 '주권 군주'는 부족이나 민족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신화적인 또는 천부적인 군주가 아니다. 아담이나 노아를 '세상의 주권 군주'라고 부른 이유는 이들이 정치 담론으로 설명할 수 통치 기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들의 절대 권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로빈슨 크루소로 대표되는 주권 군주로서의 개인은 서구 근대 국가와 시민 중심의 정치 담론을 벗어난 자유롭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나가는 개인이다(21).

그런데 데리다는 루소가 주권 군주로서의 근대적 개인이 근대 시민 민주주의의 초

석인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자유롭게 할 주권을 가진 시민과 동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건설한 사회를 "상실한 근원이라기보다는 실패한 근원에 대한 꿈"(*BS II* 22)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로빈슨 크루소』에서 재현된 절대적 자유를 가진 주권 군주로서의 개인이라는 신화를 루소는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따라서 '실패한' 꿈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근사한 대안이 현실의 민주주의 정부가 현명하게 운영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23). 이런 역설은 어떤 개인도 법을 초월할 수 없다는 루소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절대적 자유를 가져야 할 주권 군주가 법 아래 놓이게 되는 모순에서 발생한다. 즉, 데리다에게 이 모순의 원인은 주권 군주라는 개념을 "급진적인 개체성과 홀로 있음"으로 특정함으로써 생긴 "불가분성"(indivisibility)이며, 그의 목표는 균열을 허락하지 않는 '불가분한' 주권 군주가 아닌 "가분한"(divisible) 주권 군주인 개인을 찾는 일이다(Krell 79).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는 루소가 제시한 근대적 개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대적 사고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을 집중적으로 다룬 데리다의 1964-65년 강의뿐만 아니라 그의 여타 담론에서도 하이데거의 사상이 적으로, 동지로 등장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기이한 커플'인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을 다루는 2002-03년 세미나에서 데리다는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에서 제시하는 세 개의 주제문—"돌", "동물", "인간"에 대해 각각 "*weltos*", "*weltarm*", "*weltbilden*"이라는 단어로 규정한—을 중심으로 동물과 인간을 별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한계를 비판한다.[6] 2002-03년 세미나에서 데리다의 목표는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을 우주의 원초적인 힘 또는 폭력을 의미하는 '*Walten*'이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 힘이 인간이 규정한 범주가 아닌 원래의 자연, 즉 '*physis*'를 드러낸다는 하이데거 철학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BS II* 40).[7]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Walten*'이 홀로 존재하는 주권 군주인 개인의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의 부제 중 '홀로 있음'(solitude)은 동물은 홀

로일 수 없다는 하이데거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이한 커플'인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의 공통점은 '홀로 있음'이라는 주제이고, 주권 군주인 개인의 힘은 하이데거가 인간의 존재 양상인 '세계를 만든다'는 의미의 '*weltbilden*'('world-configuring' 또는 'world-forming')의 동력인 것이다.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에서 하이데거는 '*weltbilden*'를 설명하기 위해 꿀벌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꿀벌은 자신이 꿀을 얻는 식물의 꽃과 그 꽃의 색, 향에는 익숙 하지만 꽃의 수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또한 그 식물의 뿌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FCM* 193). 대조적으로 인간이 '파악하는'(configuring) 또는 '만드는'(forming) 세계는 영역 면에서 광대하고, 대상을 꿰뚫어 이해하는 깊이가 있고, 영역뿐만 아니라 이해의 깊이 면에서도 끊임없는 확장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FCM* 193). 그 결과로 세상(*Weld*)은 인간이나 동물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들의 총집합이지만, 대상 영역과 통찰력의 깊이 차이 때문에 동물이 이해하는 세계는 "빈약한" 상태고, 인간의 '*weltbilden*'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강조한다(*FCM* 193).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로빈슨 크루소』에서 등장하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서구 근대 개인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데리다는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을 루소를 매개로 살펴봄으로써 근대에서 현대까지 이어진 서구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으며, '개체화 과정'(individuation)이 전제하는 인간의 존재 조건이 동물을 포함한 타자와 공존하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서구의 '개체화 과정'을 '*weldbilden*'과 '*Walten*'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리다의 주장은 로렌스의 「섬을 사랑한 사나이」에서 '자신만의 섬'이라는 세계를 건설하고, 그 섬의 모든 존재를 관리, 통제하기를 원하는 캐스카트라는 인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캐스카트가 원하는 바는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권 군주로서의 개인이며, 그가 세 섬을 옮겨 가면서 보여주는 비극적인 삶은 '*weldbilden*', 즉 자신만의 세계 만들기를 위해 자신의 지배력으로 이 세계를 통제, 관리하려는 그의 의지가 불러오는 비극이며,

이 비극은 서구 근대문명의 태생적 문제로 볼 수 있다.

3. 로렌스의 '로빈슨 이야기'와 주권 군주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서사적인 특징은 "섬을 사랑했던 사나이가 있었다"(*MLI* 458)로 시작하는 우화 형식으로, 일상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는 "거친 자연주의"(Coroneos and Tate 112)와는 다르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의 18세기 극사실주의적 서사구조 대신 상징적인 서사 형식이 지배적인 이 소설의 "동화"(the *märchen*)적 서사구조는 심리, 도덕, 철학을 다루는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우화와 비슷하고, 완성도 면에서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eavis 324-25). 비슷한 맥락에서 로렌스의 소설이 세 개의 섬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명확한 사건 진행을 우선하는 우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단순하게 보이는 서사구조에도 불구하고 로렌스가 쓴 "아마 가장 철학적 소설"(Ellis 310)로 분류되고 있다. 이 비평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로렌스의 소설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특징인 흥미진진한 서사의 박진성(verisimilitude)은 우선적 관심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로렌스의 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섬을 사랑한 사나이」를 '로빈슨 이야기'라는 서사구조로 구현한 작가의 구체적인 '철학적' 의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섬을 사랑한 사나이」는 시작부터 외딴 섬에 대해 독자들이 흔히 기대하는 고립과 고요함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을 깨뜨리는데, 캐스카트가 원한 것이 "꼭 필연적으로 그곳에 홀로 있는 것보다는, 그곳을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기"(458)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한다. 캐스카트가 99년 임대 계약으로 얻은 첫 번째 섬은 외딴 바다에 떨어져 있지 않고 '집'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나라, 영국과 가까운 곳이다(458).[8] 이 섬에는 야자수나 파도가 일렁이는 산호초 같은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것들 어떤 것도 없고", 대신 선착장 위쪽으로 좀 음울하게 보일 정도로 괜찮은 견고한 주택이 있고, 그 너머

에는 창고가 딸린 조그만 농가와 밭이 있다. 그리고 선착장 쪽에는 세 채의 오두막이 마치 "해안 경비대의 오두막처럼" 줄지어 있는데, "모두 단정하고 흰색 회칠이 칠해져" 있었다(458). 여기서 "집", "견고한", "단정한"이란 표현은 섬에 대한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서사와는 정반대로 일상적이고 다소 산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섬에 대한 낭만적 서사를 거부하는 이 소설은 시작부터 서사의 중심이 낭만적인 고립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캐스카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섬의 규모가 "진짜 아주 작아야"(*MLI* 458) 하는데, 왜냐하면 섬의 규모가 크면 대륙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선언한다. 대륙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잉인구, 과잉밀집, 슬럼화 조건들"(458)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캐스카트가 원하는 것은 자신 한 사람만 알처럼 담을 수 있는 곳, 즉 작고 외딴 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458). 소설의 서두에서 서사의 중심이 고립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선언하지만, 이 자기만의 세상이 가능한 곳은 주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오로지 캐스카트 자신 혼자만이 알에서 깨어날 수 있는 곳으로 '홀로 있음'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홀로 있음'에 대한 자기모순적인 입장은 이 작품 내내 반복되고 있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캐스카트가 날씨가 좋고, 섬을 운영하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는 기회가 있을 때 배를 타고 영국의 주요 항구를 방문해서 지인들을 만난다는 이야기(*MLI* 464)가 그 한 예이다. 이 에피소드는 캐스카트의 여행 경비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적인 곤란과 그 영향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그의 첫 번째 섬에서의 삶이 외부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또한 캐스카트는 이 섬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우리가 낙원을 되찾으려고 모든 시도를 시작하는 것처럼"(460), 돈을 들여 낡은 건물들을 보수하고, 가정부, 농장감독, 일꾼들, 항해사, 목수와 그의 가족으로 자신의 섬을 채우면서 이들도 자신처럼 "섬사람들"(460)이 되길 원한다. 즉, 캐스카트는 첫 번째 섬을 자신만이 부화할 수 있는 둥지라고 믿으면서도, 사람들로 자신의 섬을 채우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소설에서 말하는 '홀로 있음'의 의미에 대해 독자들은 반추할 수밖에 없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여느 대규모 농장처럼 일상적으로 보이며, 캐스카트가 원하는 '자신만의 세계'를 굳이 데리다가 비판하는 '홀로 있음' 속에서 세계를 만드는 주권 군주로서의 개인이라는 틀로 재단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 섬 구성원 모두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실상 이 섬이 오로지 "그 섬사람[캐스카트]이 만든 세계이지, 너희의 것이 아니다"(*MLI* 461)라는 결심 판결처럼 들리는 선언적 서술은 이 섬이 캐스카트라는 '단 하나의 알, 오직 단 하나만이 알을 담는 둥지'이고, 그 알은 캐스카트 뿐이라는 서두 진술의 번복처럼 들린다. 즉, 이 소설은 일상적으로 보이는 이 섬의 사회가 소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이라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캐스카트를 품어야 하는 둥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재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섬에는 다른 '섬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스카트는 홀로인 것이다.

줄리언 모이너핸(Julian Moynahan)은 캐스카트가 홀로인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연대를 이룰 수 없는 사람"(193)이기 때문이고, 결국 "성격"(193)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캐스카트가 타인과의 '진정한 연대'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정확히 그의 어떤 '성격' 때문인지 모이너핸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런데 캐스카트가 연대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실패하는 이유가 '성격' 때문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과연 실패인지, 오히려 캐스카트가 갈망하는 바가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

> 그[캐스카트]는 주인이었다. 특별한 미소, 특별한 관심이 주인에게 주어졌다. 그들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섬사람은 더 이상 아무개 씨가 아니었다. 섬의 모든 사람에게, 너 자신에게도 그는 주인이었다.
>
> 음, 그건 이상적이었다. 이 주인은 폭군이 아니었다. 아니, 전혀! 그는 섬세하고, 민감한, 잘생긴 주인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길,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주인이었다. 물론 그 자신이 이런 행복과 완벽함의 샘이었다.
>
> 그런데 그는 나름 시인이었다. 손님들을 왕처럼 접대하고, 하인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었다. 그러나 그는 빈틈이 없었고, 또 매우 현명했다. 그는 절대 아랫사람들에게 주인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빈틈없고 푸른 눈을 가진 헤르메스신처럼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MLI* 461-62)

여기서 캐스카트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존경하는 이상적인 주인이고, 결코 폭군이 아니며 선의로 가득 찬 주인으로 보인다. 동시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주인이며,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베푸는 동시에 완벽함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주인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강요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주인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계몽된 주인의 모습이지만, 관리자로서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 비록 그 자신이 이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완벽함'을 내어주는 '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Moynahan 194) 사고를 하지만, 아랫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리다가 주권 군주인 개인의 특징이라고 주장한 '홀로 있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캐스카트가 농장 공동체를 운영하는 한 홀로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캐스카트의 '홀로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리다가 주권 군주인 개인의 존재 조건으로 설명하는 '홀로 있음'의 전형으로 예시하는 로빈슨 크루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빈슨 크루소는 표류한 섬에 정착한 후 이미 자신이 필요한 곡물을 경작해서 충분히 수확했고, 거북이 고기 등 필요한 양식이나 난파한 선박에서 얻은 목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내가 농장 전체의 주인이고, 원하면 내가 소유한 온 나라에 군림하는 왕 또는 황제라고 나 자신을 부를 수도 있었다"고 선언한다.[9]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내 주권이나 지휘권을 다툴 경쟁자가 없었다"(109)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외딴 섬에 고립되어 '홀로 있음'의 상태에 처했지만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의 주권과 지휘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영위하는 절대 군주로서의 삶을 아래와 같이 들려준다.

나와 내 자그만 가족이 식사하러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절제하는 미소를 짓게 만들었을 수 있다. 거기에는 군주 폐하이시자 전체 섬의 주인이 내가 있었다. 나는 내 신하들의 목숨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원하면 교수형에 처할 수 있고, 사지를 찢을 수도,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었고, 내 신

> 하 중에는 반역자가 없었다.
>
> 그러니 어떻게 내가 오직 홀로 식사를 왕처럼 하는지 보아라. 마치 나의 총애를 받는 듯이 나를 시중드는 하인 폴이 유일하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게 허락받은 인물이었다. (*BS II* 28-29; *RC* 125-26)

절대 군주로서 정찬을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 장면에서 '총애'를 받는 신하로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폴은 로빈슨 크루소가 포획한 앵무새이다. 이 궁정에 다른 신하들이라고는 자신이 기르는 늙은 개 한 마리가 자신의 오른쪽에서 보좌하고 있고, 고양이 두 마리가 테이블마다 한 마리씩 앉아 있다(*BS II* 29; *RC* 126).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장면의 분위기는 로빈슨 크루소가 절대 군주로서 권력으로 '원하면 교수형에 처할 수 있고, 사지를 찢을 수도,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끔찍한 형벌을 예시로 드는 순간 전복된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앵무새, 개, 고양이가 신하로서 자신을 절대 군주로 모시는 이 순간이 형벌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 군주인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자신의 신하이다. 이 맥락에서 '홀로 있음'은 고립된 삶이 아니라 신하들 위에 홀로 군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로빈슨 크루소의 권력은 신하들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절대 권력이다.

로빈슨 크루소의 이와 같은 세계관은 프라이데이(Friday)가 등장한 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이 사회를 그리워했으나 동물들과 함께 절대 군주처럼 지내는 삶으로 충분히 사회를 경험했다고 말하지만(*BS II* 29; *RC* 126), 프라이데이와 함께 등장한 인간들 때문에 다시 절대 군주로서의 정체를 과시한다.

> 이제 나의 섬에는 인간들이 생겼고, 나는 내 스스로 신하를 풍부하게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얼마나 왕처럼 보였는지 종종 즐겁게 회상했다. 첫째로, 나라 전체가 나만의 보잘것없는 자산이었고, 나는 명백한 지배권을 가졌다. 둘째, 내 백성들은 완벽하게 복종했다. 나는 절대적인 영주였고 입법권자였다. 그들은 나에게 생명을 빚졌고, *만일의 경우가 생긴다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 또한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단 세 명의 신하가 있었지만, 이들의 종교가 셋이 모두 달랐다. 나의 부하 프라이데이는 신교도였고,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이자 식인종이었고, 스페인사람은 가톨릭신자였다. 그런데 나는 내 지배 영역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허락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BS II* 29; *RC* 203; 필자 강조)

동물이 아닌 인간들이 자신의 세계로 유입되었지만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는 입법자로서의 절대 권력을 재차 강조한다. 즉, 로빈스 크루소는 동물이든지 인간이든지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는 절대 군주인 자신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서구의 식민지 경쟁 시기를 배경으로 영국 출신의 백인인 로빈슨 크루소가 원주민인 프라이데이를 주종관계로 묶어버리는 태도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반면 프라이데이를 "서구인에 의해 타자화되어 식민화된 원주민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근대적 개인 안에 들어온 타인의 표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전인한 80)은 근대의 개인상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자면 『로빈슨 크루소』가 제시하는 근대의 절대 군주로서의 개인상은 근대가 지향한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운명이었는데, 그 원인은 타인을 절대 군주의 권위로 복종시켜야 한다는 세계관 때문이다. 즉, 서구의 근대사상에 내포한 문제가 『로빈슨 크루소』에서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지적대로 서구 근대의 개인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절대 군주로 군림하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타자를 복속시키는 존재이다. 이 세계에서 절대 군주는 입법 권력을 가지고 법 위에 군림하고, 어떤 존재에게도 동등한 위치를 허용하지 않는, 따라서 홀로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절대 군주는 인간이 규정한 범주가 아닌 원래의 자연, 즉 '*physis*'를 드러내는 우주의 원초적인 힘 또는 폭력을 의미하는 '*Walten*'을 권력으로 가진다(*BS II* 40).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는 로빈슨 크루소의 표류기 초기에 등장하는 사자 사냥 사건(*RC* 26)을 지목하고, 죽은 사자의 가죽을 정성스럽게 말려 깔고 자는 로빈슨 크루소와 '짐승'을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과거의 절대 군주들과 동일시한다(*BS II* 28). 데리다의 논지에 따르자면 로

빈슨 크루소의 사자 가죽은 그의 '*Walten*'을 상징하며, 이 힘은 하이데거가 '개체화 과정'으로 규정한 '*weltbilden*', 즉, 세계를 만드는 동력이다.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첫 번째 섬에서 등장하는 캐스카트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이 세계가 자신이라는 '단 하나의 알'을 담는 둥지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측면에서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근대적인 주권 군주로서의 개인이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가진 권력의 상징이 짐승인 사자 가죽인 반면, 캐스카트가 가진 권력의 상징은 '돈'과 '지식'이다. 그는 '돈'으로 자신의 세계인 섬을 샀고, 이 세계가 급여를 포함한 운영비가 있어야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캐스카트에게는 '돈'보다 '지식'이 더 중요한데, 그는 자신이 '행복과 완벽함'을 내어주는 '샘'인 동시에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의 샘"(*MLI* 462)라고 믿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가 아랫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강요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주인이지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고압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랫사람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권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이 지식을 그는 아랫사람들에게 기이한, 반은 역설적이고 반은 거들먹거리는 방식으로 나누어줬는데, 마치 자신이 진실로 희한한, 반쪽만 현실인 신들의 세계에 속한 것 같았다"(462). 여기서 '지식'이란 주로 농장 운영 관련한 지시로 캐스카트는 주로 크림색의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서 "까탈스럽고, 빈틈없고, 현명한" 지시를 내리고, 농장 노동자들은 "말없이 경이롭게" 듣고만 있다(462). 하얀색을 바탕으로 우아한 그의 몸짓은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신으로 자신을 연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Moynahan 193).

지식을 전달하는 캐스카트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로빈슨 크루소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로빈슨 크루소에게 재현의 언어까지도 독점을 허용하는 『로빈슨 크루소』와는 달리 「섬을 사랑한 사나이」는 독립된 화자를 통해 캐스카트가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전달하고 있다.[10]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라고 부르면서 존경심으로 대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치 그가 상위이지만, 또한 더 연약한 존재인 듯"(*MLI* 462) 생각한다. 이들은 모여서 '주인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묘한, 조롱하는 미소"를 띠고, 지시를 받아들

이기는 하나 주인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순응이 아니라 '지가 만든 세상이니 지 맘대로 하라고 해'라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이다(*MLI* 463). 즉, 캐스카트가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방식은 수용하지만, 이들에게 그는 더 이상 두려운 힘을 통해 군림하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사는 사람들이 캐스카트를 비유하는 표현들은 밭고랑 위를 나르는 "새"(*MLI* 462)나 "공감이라곤 없는, 함축적이지도 않은, 이상하고 낯선 동물"(464)이고, 그가 끼고 있는 "독특한 말똥구리가 달린 반지"(the ring with peculiar scarab, 464)는 주목의 대상이다. 이런 동물이나 곤충 비유가 로빈슨 크루소의 사자 가죽처럼 절대 군주의 폭력적인 짐승성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스카트가 '희한한, 반쪽만 현실인 신들의 세계'에 속하는 존재로서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존재, 따라서 홀로인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캐스카트의 '홀로 있음'은 양방성, 즉 캐스카트 자신의 섬사람들과의 거리두기와 캐스카트를 상위의 존재지만 이질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섬사람들의 인식이 중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20세기의 절대 군주로서의 개인인 캐스카트는 섬사람들의 방관자적인 태도 속에서,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홀로 있어야 하는 운명이다.

4. 주권 군주의 종말

캐스카트의 '완벽한' 농장 운영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섬의 세계는 적자로 고통받게 되고, 3년간의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무너진다. 어려운 재정 운영 속에서도 '주인님'의 절대 권력을 의심치 않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암소 한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변고를 시작으로 일련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주인님'에게도 비협조적으로 변한다(*MLI* 465). 이와 함께 이 섬의 공기 중에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적의"(465)가 퍼지고, 섬 자체가 "악의적"(465)으로 변한다. 며칠 후 날씨가 다시 화창하

게 변하지만 사람들의 반목은 더 심해지고, 섬이 다시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지만 '행복', '완벽함'과 '지식'이 지배하는 캐스카트의 세상을 부정이라도 하듯이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가 다른 박동으로 뛰었던 섬의 신비한 과거"(466)로 돌아가길 갈망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캐스카트가 만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낯선 열망이 홍수들"처럼 엄습하면서, "낯설고 거친 욕정들과 잔인함에 대한 상상"을 불러온다(466). 즉, 자연이 캐스카트가 만든 세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것이다. 캐스카트 스스로도 자신의 세계라고 믿었던 섬을 약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에게는 완전히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욕정에 찬 갈망"(466)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드러나는 바는 캐스카트가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힘', '*Walten*'이라는 권력으로 이 '낯선' 느낌과 존재들, 즉 '타자'를 박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들뢰즈의 분석은 서구 상상을 지배해온 절대 군주로서의 개인과 타자의 적대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들뢰즈는 1969년 프랑스어로 처음 출판된 『감각의 논리』(*The Logic of Sense*)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주제가 고립된 섬에서 "타자 없이 혼자인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선의의" 탐구라고 정리한다(303). '선의'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들뢰즈는 디포의 의도에 대해 비판적인데, 그는 성(sexuality)을 경제적 원칙에 대한 일탈로 배제하는 자본주의 현실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근면하면서 성에 대해 무관심한, 따라서 자본주의에 최고 적합한 인물을 고립된 섬에서 경제 원칙에 따라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게 함으로써 최종 목표가 "비인간화"(dehumanization, 303)라는 역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들뢰즈는 난파당한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에는 혼자, 즉 타자를 잃었기 때문에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의 겪는 곤경은 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표류의 삶을 살면서 점차 오히려 세상을 방해하는 것이 '타자'이고, '타자'는 제거해야 할 문제라고 믿게 된다고 주장한다(311). 여기에는 '타자'의 질서가 현재의 질서를 무질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들뢰즈의 믿음이 깔려있다(315).

들뢰즈의 '타자'에 대한 믿음은 표현이나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절대 군주로서의 개인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데리다가 제시하는 절대 군주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 과정은 '타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를 자기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첫 번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자애로운 절대 군주로 등장하는 캐스카트를 보면서 "그가 진정 그들 어느 누구에게라도 남성과 남성,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좋아하는지 의문이 들었다"(MLI 463)는 서술은 그가 원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자신의 세계가 완벽한 것이라는 서술과 함께 캐스카트가 로빈슨 크루소와 마찬가지로 경제원리에 따라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성'과 '타자'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섬이 무너지는 순간 캐스카트가 느낀 욕정에 찬 '낯선' 갈망은 '타자'의 귀환을 의미하고, 들뢰즈의 논리에 따르면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두 번째 섬은 바로 이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첫 번째 섬의 실패로 좌절하지만 캐스카트는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소유한 두 번째의 작은 섬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이주하는데, 이들 중에 과부의 딸로 캐스카트의 시중을 들 플로라(Flora)라는 여성이 있다. 두 번째 섬에서 플로라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캐스카트의 '타자'로 등장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잘못된 교접"(Walterschield 59)에 그치고 만다.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화자는 첫 번째 섬의 실패로 인해 절망적이게 된 캐스카트가 자기 자신을 폴로라에게 포기하듯이 넘겨버렸고, 플로라도 캐스카트를 원하지는 않지만 주인에게 순종하기 위해 사랑이 아닌 의지로 이 관계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MLI* 472). 캐스카트는 자신이 플로라를 거부하는 이유가 성적인 관계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성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었기 때문이고, 자신은 성을 "위대한 생명의 신비 중 하나"라고 변명한다(471).

그런데 캐스카트와 플로라와의 관계가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그가 첫 번째 섬이 자신이라는 '알'을 품어야 할 '둥지'라고 표현할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건국 신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알에서 태어나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는 여성의 자궁과 어머니와 아이를 잇는 탯줄을 부정하며, 결국 여성·어머니의 존재를 지우는 남성 중심의 담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로빈슨 크루소를 성에 관심이 없는 비인간화의 주체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성을 타자로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이 초래할 수 있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 같은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데리다는 '기이한 커플'인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으로 주권과 개체화를 논의하는 장에서 여성을 배제한 점이라고 지적한다(*BS II* 28). 주권 군주로서 개인이 세계를 구축하는 이야기인 『로빈슨 크루소』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듯이, 하이데거의 '세계를 만드는'(*weltbilden*) 인간의 범주에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다.[11] 데리다의 주장에 따르자면 주권 군주이기 때문에 '세계를 만드는' 캐스카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 한 여성을 타자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플로라와의 관계에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첫 번째 섬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섬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않고 더 작은, 그래서 더 쉽게 통제하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섬을 선택하는 불굴의 의지는 캐스카트에게 주권 군주로서의 정체성이 선택이나 포기의 대상이 아닌 인간(*Mensch*)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존재 조건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플로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임에도 캐스카트는 "도피"(*MLI* 473)를 계획하고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마지막 섬인 세 번째 무인도로 향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을 시멘트와 철골로 거처를 마련하고, 절대적인 '홀로 있음'의 삶을 선택한 캐스카트는 어느 날 보트를 타고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의 존재를 자신의 세계가 "침범"(*MLI* 476) 당한 경우로 간주하고, 이들이 전달한 우편물에 남은 체취와 흔적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의 극단적인 인간 혐오는 어느 해가 나지 않은 겨울날 날씨는 물론 자신의 이성과 영혼이 모두 주변을 정확히 분간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에 빠질 때 발생한다.

> 그가 아프게 되었다, 마치 자신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마치 해체가 이미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된 것처럼.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바깥도, 자신의 이성과 영혼에

> 서도. 한번은 문으로 갔을 때, 자신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의 검은 머리를 보았다. 그는 잠시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 그건 충격이었다,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접근한 공포였다. 그리고 검은 머리들이 헤엄치고 있는 표범들의 머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충격이 그를 잠식했고, 실체 없는 유령처럼 만들었다. 메스꺼운 안도감이 몰려왔다. (*MLI* 476)

육체적, 정신적 고갈 속에서 바다의 표범을 인간으로 착각했다는 이 장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한 섬을 돌아보다가 해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발자국"(*RC* 138)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장면과 유사하다. 데리다는 로빈슨 크루소의 공포가 이 발자국을 주권 군주로서 만든 자신의 세계에 침입한 존재의 정체가 신인지 악마인지 인간이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이 순간을 인식과 존재의 토대(ground)가 흔들린 상태를 의미하는 "*unheimlich*"라고 표현한다(*BS II* 48). 데리다의 해석을 따르면 캐스카트가 느끼는 공포는 마지막 섬에서도 주권을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이 자신이 만든 세계가 침범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권 군주로서의 캐스카트의 삶은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는 책을 포함한 출판물과 활자(*MLI* 477)가 타락한 언어의 형태라고 혐오감을 드러내고 급기야 자신의 난로에 붙은 상표까지 뜯어 내버리고, 집 안의 글자란 글자는 모두 없애버린다(470). 캐스카트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절망 상태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인간 혐오라고 볼 수 있지만, 데리다의 하이데거 비판은 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데리다는 주권 군주의 힘을 의미하는 하이데거의 '*Walten*'이란 개념이 '말'(word)이란 의미의 'logos'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logos'의 역할은 '*Walten*'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S II* 42).[12] 즉, 캐스카트의 활자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는 바로 주권 군주로서의 자신의 힘, '*Walten*'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인 'logos'를 거부하려는 태도에서 생긴 것이고, 결국 자신의 주권 군주로서의 삶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자신의 세계로 만들 수 없는 날 것의 자연에 굴복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눈폭풍을 맞서 죽음을 가다리는 것이다: "자연! 자연! 그는 마음에서 그 단어를 멍하게 되풀이했다. 자연에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다"(The elements! The elements! His mind repeated the word dumbly. You can't win against the elements, *MLI* 479).

5. 나가면서

「섬을 사랑한 사나이」의 주인공 캐스카트가 주권 군주로서의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는 종말은 작가 로렌스가 자신이 속한 서구 문명의 근대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이어진 세계관이 사망했음을 알리는 조종으로 읽을 수 있다. 캐스카트가 원하는 바는 사회와 단절된 외딴 섬에서의 고립된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자신만의 의지로 모든 존재를 관리, 통제하는 삶이다. 단순하게 보이는 우화 형식을 통해 전달되는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에 실린 서구문명에 대한 고찰의 깊이는 서사 그 자체로도 울림이 있지만, 데리다의 『로빈슨 크루소』와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 비교 연구와의 대화 속에서 그 깊이의 참된 의미가 살아난다고 볼 수 있다. 「섬을 사랑한 사나이」는 이 '기이한 커플'의 공통 주제인 서구문명의 개인과 주권의 문제를 소설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이 문제를 반성적으로 고찰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Notes

1) D. H. Lawrence, "The Man Who Loved Islands." *Selected Short Stories*. Edited by Brian Finney. Penguin, 1989. 458쪽. 이하 "The Man Who Loved Islands"의 인용은 괄호 안에 *MLI*와 쪽수로 표시한다.

2) '로빈슨 이야기'라는 용어는 맑스(Karl Marx)가 18세기 영소설가 디포(Daniel Defoe)의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The Life and Strange Surpriz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1719)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근대적 개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고, 경제, 국가, 주권, 시민과 같은 주제와 연관이 있다(*The Beast & The Sovereign II* 23). 이하 *The Beast & The Sovereign II*의 인용은 괄호 안에 *BS II*와 쪽수로 표시한다.

3) 데리다는 짐승과 동물을 구분하는데 짐승은 사자, 곰과 같은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된 폭력적인 동물을 의미한다. 박시영(2021) 1-2쪽을 참고하시오.

4) 1995년에 출판된 『형이상학의 근원적인 개념들』의 영역본에서는 'prevail'이라고 번역한다. Martin Heidegger, *The Fundamental Concepts of Metaphysics: World, Finitude, Solitude*. Translated by William McNeil & Nicholas Walker, Indiana UP, 1995, p. 376

5) 데리다는 『로빈슨 크루소』를 루소부터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까지 수용해온 입장을 정리하는데, 이는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방대한 해석은 크게 근대적 개인의 신화론, 맑스에서 이언 와트(Ian Watt)까지 이어진 근대적 경제 인간의 전형론, 제국주의자 또는 식민지정복자의 원형론, 그리고 인류세(Anthropocene) 인간론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로빈슨 크루소』의 비평사에 대해서는 Richetti(1988) 203쪽과 전인한(2004) 64쪽을 참고하시오.

6) "The stone has no world," he [Heidegger] says, *der Stein ist weltos*, "The animal is poor in the world," *das Tier ist weltarm*, "Man is world-configuring or world-forming," *der Mensch ist weltbilden* |H, 261/176| (*BS II* 6).

7)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이 철학의 중심 원칙이라고 규정한다. "Since metaphysics is the central discipline in the whole of philosophy, the treatment of its fundamental features becomes a condensed report on the main contents of philosophy." Martin Heidegger, *The Fundamental Concepts of Metaphysics: World, Finitude, Solitude,* p. 1. 이하 *The Fundamental Concepts of Metaphysics: World, Finitude, Solitude*의 인용은 괄호 안에 *FCW*와 쪽수로 표시한다.

8) 이 소설은 출판부터 논란에 휩싸였는데, 세 개의 섬을 전전하는 주인공 캐스카트가 소설의 출간 전인 1926년까지도 로렌스와 친했던 스코틀랜드 출신 소설가인 컴턴 맥켄지(Compton Mackenzie)를 희화화했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맥켄지는 이 소설의 배경인 세 개의 외딴 섬들이 실제 자신이 소유했던 섬들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출판 금지를 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박시영(2012) 1-4쪽을 참고하시오.

9) Defoe, Daniel. *Robinson Crusoe.* Edited by Thomas Keymer, Oxford UP, 2008. p. 109. 이하 *Robinson Crusoe*의 인용은 괄호 안에 *RC*와 쪽수로 표시한다.

10) 이 화자에 대해서는 최선령(2013) 93-113쪽을 참조하시오.

11) 하이데거는 주권을 실천하는 주체를 표현한 '*ipseity*'라는 단어의 '*ipse*-'가 남성적 자아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결과물이 '군주'라고 주장한다. Bascuñán(2019) 2쪽을 참고하시오.

12) 'logos'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은 Bambach(1995) 201, 235쪽을 참고하시오. 로렌스 자신도 'logos'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글 속에 담고 있는데 『누운씨』(*Mr Noon*)가 대표적인 예이다. D. H. Lawrence, *Mr Noon*, Cambridge UP, 1984, 193-94쪽을 참고하시오.

인 용 문 헌

박시영. 「로렌스(D. H. Lawrence)의 「여우」("The Fox")와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늑대」. 『로렌스 연구』, 29권 1호, 2021, 1-23쪽.

_____. 「D. H. 로렌스의 「섬을 사랑한 사나이」」. 『로렌스 연구』, 20권 3호, 2012, 1-14쪽.

전인한. 「근대의 모순: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형상화된 개인의 완성과 붕괴」」. 『영미문학연구』, 7호, 2004, 57-87쪽.

최선령. 「D로렌스의 「섬을 사랑한 사나이—세 번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읽기」」. 『영미문학연구』, 20호, 2013, 93-113쪽.

Bambach, Charles R. *Heidegger, Dilthey, and the Crisis of Historicism*. Cornell UP, 1995.

Bascuñán, Matías. "'Da-sein, first letter to Being': Reading Heidegger's Decree of Ipseity in Derrida's 1964-65 Seminar". *Creative Commons*, https://doi.org/10.3998/pc.12333337.0013.007.

Coroneos, Con. and Trudi Tate. 'Lawrence's Tale'. *The Cambridge Companion to D. H. Lawrence*, edited by Anne Fernihough, Cambridge UP, 2001, pp. 103-18.

Defoe, Daniel. *Robinson Crusoe.* Edited by Thomas Keymer, Oxford UP, 2008.

Derrida, Jacques. *The Beast & the Sovereign.* Vol. 2, edited by Michel Lisse et al., translated by Geoffrey Bennington, U of Chicago P, 2011.

Deleuze, Gilles. *The Logic of Sense.* Edited by Constantin V. Boundas, translated by Mark Lester and Charles Stivale, Athlone, 1990.

Harris, Janice Hubbard. *The Short Fiction of D. H. Lawrence*. Rutgers UP, 1984.

Heidegger, Martin. *The Fundamental Concepts of Metaphysics: World, Finitude, Solitude.* Translated by William McNeil and Nicholas Walker, Indiana UP, 1995.

Karl, Frederick R. “Lawrence’s ‘The Man Who Loved Islands’: The Crusoe Who Fail.” *A D. H. Lawrence Miscellany*, edited by. Harry T. Moore, Southern Illinois UP, 1959, pp. 265-79.

Krell, David Farell. *Derrida and Our Animal Others*. Indiana UP, 2013.

Lawrence, D. H. “The Man Who Loved Islands.” *Selected Short Stories, edited by* Brian Finney. Penguin, 1989.

_____. *Mr Noon*. Edited by Lindeth Vasey. Cambridge UP, 1984.

Leavis, F. R. *D. H. Lawrence: Novelist*. Penguin, 1981.

Moynahan, Julian. *The Deed of Life: The Novels and Tales of D. H. Lawrence*. Princeton UP, 1963.

Richetti, John. H. ‘*Robinson Crusoe*: The Self as Master’. *Modern Essays on Eighteenth-Century Literature*, edited by Leopold Damrosch, Jr. Oxford UP, 1988. pp. 206-36.

Waltershield, Kathryn A.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Touch in D. H. Lawrence*. Peter Lang, 1993.

Abstract

D. H. Lawrence's "The Man Who Loved Islands" and Jacques Derrida on 'Robinsonade'

See-Young Park
Ewha Womans University

D. H. Lawrence's "The Man Who Loved Islands," accommodated in fabular narratives, presents a man who wants to build his own world on islands. Instantly this story triggers readers' romantic imagination about a hero's adventure into the uncharted world. Yet the romantic imagination quickly turns into disappointment when the readers encounter an asexual and quizzical man, whose economic principle dictates his self-sufficient farm. The prosaic actuality depicted in a fable-like narration denies any easy reading with conflicting and challenging details on solitude and authority. Jacques Derrida's reading of Daniel Defoe's *Robinson Crusoe* and Martin Heidegger's theses on metaphysics shed new light on Lawrence's Robinsonade. Cathcart, The main character in Lawrence's story, who wants to build his own world and control every presence in the world, represents the sovereign individual, and his tragic death tells how the Western modern civilization ends. "The Man Who Loved Islands", as if simplified, reincites the long standing challenge against the modern concept of sovereign individual.

Keywords: solitude, sovereign, metaphysics, Robinsonade, authority, world-forming (*weltbilden*), prevailing (*Walten*)

논문접수일: 2026.9.15
심사완료일: 2026.9.30
게재확정일: 2026.10.08

이름: 박시영
소속: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교수
이메일: parkseeyoung@ewha.ac.kr